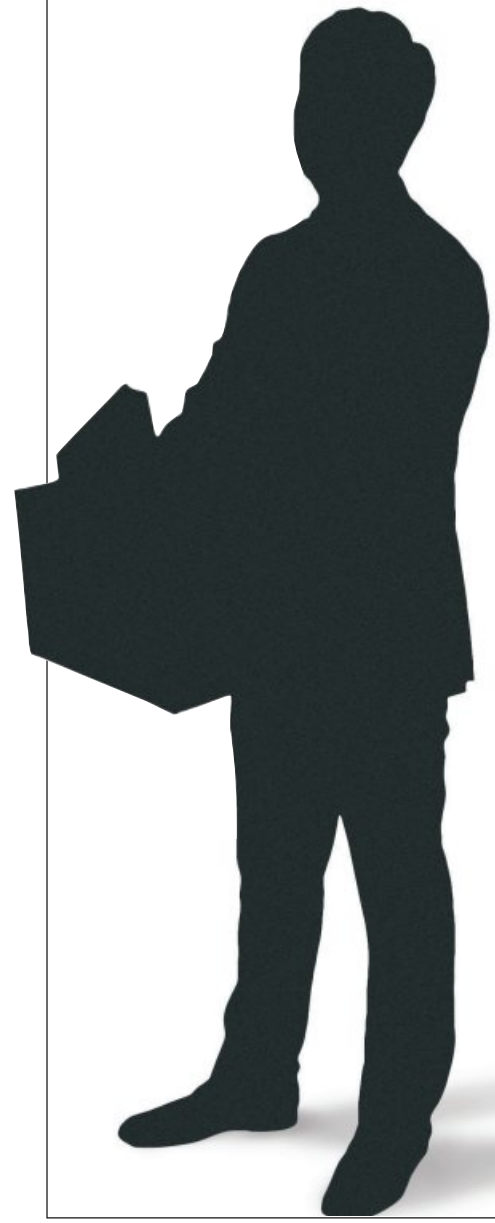


3040 '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광주 지난달 30~40대 취업자 전년대비 1만6000명 감소
2분기 30대 고용률 10년만에 최저...17개 시·도 중 최저



2년 넘게 지속하는 코로나19 경제충격을 '허리 세대'가 떠안으면서 지난달 광주 30~40대 취업자가 전년대비 1만6000명 넘게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광주 30대 고용률은 2012년 이래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뿐더러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취업자 수는 광주 75만4000명·전남 10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0%(200명)·1.9%(1만8800명) 증가했다.

전국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82만6200명) 증가한 284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했지만, 이는 전달 증가 폭(500명)보다 완화된 수치다.

연령대별로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지난달 30대와 40대만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남에서는 40대 취업자 수만 빠져나갔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광주 18만5000명·전남 19만8000명 등 3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700명(광주 1만400명·전남 2300명)이나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광주에서 4200명 감소하고, 전남은 100명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는 광주 300명·전남 2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광주·전남 20대 취업자 증가 폭은 5월(1만800명), 6월(6000명), 7월(500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이외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광주 8500명·전남 1만7000명 증가하고 '15~19세' 광주 2600명·전남 2100명 '50대' 광주 3400명·전남 1700명 증가했다.

오랜 고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는 올해 2분기 20대와 30대 고용률이 바닥을 치면서 15~64세(생산가능인구 기준) 고용률 최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기준 광주 15~64세 고용률은 63.9%

로, 전국 평균(68.9%)을 크게 밑돌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대 고용률(50.6%)과 30대 고용률(70.0%)도 전국 평균(20대 61.0%·30대 77.1%)을 각각 밑돌면서 전국 최저를 나타냈다.

올해 2분기 광주 30대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떨어지면서 지난 2012년 2분기(69.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광주 '경제 허리 세대'의 고용절벽 현상은 이미 장기전으로 들어갔다.

광주 30대 취업자 감소세는 지난 2019년 7월(-1100명)부터 3년 1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다.

40대 취업자 감소세는 지난해 9월(-3600명)부터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허리 세대'의 고용난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업종 쇠퇴와 관련 있어 보인다.

지난달 광주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업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1만3600명)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만3300명), 건설업(-89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3500명) 등이었다.

반면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 취업자가 1만2600명이나 늘고, 제조업(8200명), 농림어업(5200명) 등도 회복세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건설업(-1만3500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종(-1100명) 고용이 타격을 입었다.

통계 당국은 가사 등의 이유로 상당수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간 것을 광주 고용 회복세가 더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박영희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팀장은 "지난달 전국 취업자는 남성 41만3000명·여성 41만3000명 등 비등한 증가 폭을 나타냈지만 같은 기간 광주에서 남성 취업자가 2100명 늘어난 반면 여성은 1900명 줄었다"며 "광주 여성 취업자 감소와 더불어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광주 고용 회복세가 전국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자영업자 대출 상환부담 줄인다

'금리 6.5% 이하로 갈아타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9월말부터 신청
5월까지 취급된 사업자대출 대상...화물차·중장비 할부도 전환가능

변동금리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 부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한다.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

이 큰 만큼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라 하더라도 이번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로 고정 부과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이나 은행에서 연 7%대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대 6.5%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5년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대환은 연말까지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여억 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할부quot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할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추석 성수품 공급량 확대...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주력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주요 품목의 재배를 확대한다.

또 가꾸로 잘 부서지는 쌀(분질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45.8%인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패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우선 올해 추석 성수품 농식품 물가 관리에 집

중한다. 농식품 물가는 추석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큰 폭으로 늘리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배추, 무 등 품목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고랭지 배추와 감자의 신규 재배지를 각각 100ha, 310ha 확보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과·배 등 주요 품목의 재배도 늘리고 작황을 꼼꼼히 관리한다. 그 일환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하락 추세에 있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

한다.

분질미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분질미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과 콩의 공공 비축물량을 늘리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2곳인 해외 곡물 오픈마켓(곡물 저장·물류시설)을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추가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농업과 결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내달 중에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교육·농자·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박서홍(왼쪽 2번째) 농협 전남본부장 등 농협 임직원들이 10일 강진군 성전면 녹향월촌마을에서 연 다포 자수를 체험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여름방학은 전남 팜스테이 마을에서”

농협 전남본부, 강진서 체험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0일 강진군 성전면 '녹향월촌 팜스테이 마을'을 찾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체험행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팜스테이는(Farmstay)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한 농촌체험관광 상품을 말한다.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 생활, 문화 체험을 하고 주변 관광과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은 올해 27개 마을이 팜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팜스테이협의회 임원들과

전남 농협 시군 지부장,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녹향월촌마을 팜스테이 체험을 하고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월출산 자락에 있는 녹향월촌마을은 9개 마을이 모여 만들어진 농촌 휴양 마을이다.

다도 체험과 쌀 잡곡 강정 만들기, 연 다포 자수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농촌관광 및 팜스테이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전남 팜스테이 마을에 많은 방문객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전자, 노조와 첫 임금협약 체결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최원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과 4개 노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회사가 기존에 정한 2021년(평균 7.5%), 2022년(평균 9%)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확대(3일→4일) 및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2022년 한정)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노사상생 테크포스트(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와 휴직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협상과 2022년 임금협상을 통합해 진행했다.

초기에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삼성전자 DS부문 경제현 대표이사(사장)가 3월 직접 노조 대표자들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노조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여일 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노조는 협상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접으며 양보했고, 회사 측도 명절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총 4개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약 6000명이다. 작년 기준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11만2868명)의 5.3% 규모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사회배려층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 확대

HUG,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10%p 늘리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을 오는 10%포인트 확

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된 할인율이 기존 40%

에서 50%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HUG는 보증료 할인 확대를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공장에 카페 설치 쉬워질까...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에 사내 복지시설로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면적에 대해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만들 수 있다.

또 용도변경시 조정 설치 등 추가 시설이 필요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공장 경우 입지에 따라 용도변경이 안 돼 카페 설치가 불가능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카페도 구내식당

처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구내 식당이 없는 영세한 공장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카페 등 휴게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2480.88(-22.58) |
| ↓ 코스닥 | 820.27(-13.38) |
| ↑ 금리(국고채 3년) | 3.154(+0.020) |
| ↑ 환율(USD) | 1310.40(+5.80) |